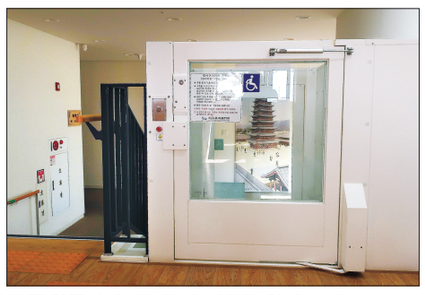
누구나 순례하기 편한 '無장애 사찰' 어딜까?



양산 통도사 경내 휠체어 이동 경로 표시 안내도. 사진제공=보리수아래


경주 황룡사지 기념관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 마련된 경사로 모습.


서울 조계사의 점자블록과 점자안내판.


김천 직지사 만세루로 향하는 길. 휠체어와 유모차 등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경사로가 설치됐다.


보은 법주사 템플스테이관의 엘리베이터형 리프트.



문턱이 없는 서울 흥천사 전법회관.


서울 화계사 계단에 설치된 손잡이.


대구 동화사 약사여래대불 앞 엘리베이터 모습.

무장애 사찰 체크 리스트

'무장애'는 장애물이 없는 환경을 의미한다.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리적 · 제도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편의증진법' 제정, 편의시설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구조로 바뀜에 따라 사찰 환경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사회는 여전히 사찰이 편의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불편하다는 인식이 높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 약자들의 불교 접근성을 낮춘다는 것. 많은 사찰이 휠체어 등이 경내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법당까지 참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 유모차를 탄 아이 등 이동이 쉽지 않은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을 파악해 사회 전반에 알릴 필요가 있다. 이에 사회적 약자도 가기 좋은 '무장애 사찰' 모범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우리 전통문화를 좋아하는 교통약자라면 경사로와 장애인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있어 둘러보는 데 불편함이 없는 사찰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여기에 이동 편의성과 더불어 부처님께 삼배의 예를 드릴 수 있는 전각도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문턱이 없는 서울 흥천사 전법회관, 전각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전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서울 봉은사, 엘리베이터로 법당 바로 앞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서울 상도선원과 수원 수원사, 현대식 건물로 이동 편의성을 확보한 부산 홍법사 등이 좋은 예이다.

성보의 상당수가 국보나 보물 등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사찰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많은 전통사찰이 법당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이동식 경사로를 둬 접근이 쉽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계종 교구본사 대부분이 경내에 경사로와 장애인 화장실 및 주차 구역을 갖추고 있다. 특히 최근 지어진 템플스테이관이나 박물관, 전통찻집 등은 접근이 더욱 편리하다.

전통사찰, 법령 규제에도 경사로 설치
엘리베이터 · 도움콜 등 편의시설 도입
현대식 사찰은 설계 단계부터 '無장애'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에는 법당 뒤편에 대웅보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무 경사로가 설치돼 있다. 전통사찰의 경우 관련 법령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쉽지 않기에 더 반가운 일이다. **해인총림 합천 해인사**의 대적광전과 관음전 앞에는 붙박이 경사로가 설치됐다. 사찰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교통약자도 쉽게 법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축총림 양산 통도사**는 문턱 없는 휠체어 전용 출입로를 갖추고 있다. 또 화엄전 옆에 '엄마 쉼터 수유실'을 마련해 아이와 함께 사찰을 방문하는 젊은 부모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상당수의 전통사찰은 경내가 흙마당이라 점자나 유도블록을 설치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러나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에는 경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촉지도와 유도블록, 경사로가 설치돼 있어 장애인도 자유롭게 참배할 수 있도록 했다. 조계사는 앞서 2016년 경내에 2평 남짓한 수유실을 마련해 부모와 아기가 행복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봉은사는 유도블록을 설치하기 힘든 대신 일주문에서부터 각 전각과 이동 경로 등 20여 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판과 도움벨을 부착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찰 이용 편의를 살피고 있다. 전화는 경비실과 종무소로 연결돼 호출 즉시 상근자가 찾아와 도움을 준다. 종무소에는 장애인 전담은 아니지만 봉사자가 교대로 호출에 응대하고 있다.

최근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사찰들이 늘어나면서 설계 단계부터 편의시설을 갖추는 경우도 많다. 서울 상도선원은 큰법당 바로 앞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돼 있다. **수원 수원사**는 법당까지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물론 부속건물마다 경사로를 설치했다. **보은 법주사** 템플스테이관의 엘리베이터형 장애인 리프트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대부분 사찰 입구에 마련돼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특히 **경주 황룡사지 기념관**은 1층과 2층 사이에 화장실이 있어 장애인 화장실로 가는 전용 리프트를 설치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서울 흥천사 전법회관**은 전 층을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디에도 문턱이 없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법당에 자유로이 들어가 참배하고 법문도 들을 수 있는 구조다.

부산 홍법사 대웅보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원형법당에 모셨다. 원형법당은 현대식 건물인 만큼 교통약자들이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쉽다. 법당 외부에는 여러 갈래에서 경사로가 나 있고 대웅보전도 턱이 거의 없어 장애인이 참배하기 편한 구조다. 아미타대불도 엘리베이터로 이동해 가까이서 친견할 수 있다.

회 주
의 정 대종사
선원장 각 산
외 대중일동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WORLD MEDITATION VILLAGE
◆ 1577-4327 / 010.6408.3280

